

## 〈심청전〉에 나타난 설득 담화 양상 연구 —표현교육의 제재로서 ‘신재효본’의 가치를 중심으로

주재우 전북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 \* 이 논문은 제70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9.12.7.)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지정토론으로 논의를 보강하는 데 도움을 주신 김서윤 선생님(경상대)께 감사드린다.

- I. 서론
- II. 논의를 위한 예비적 고찰
- III. 인물간 설득 담화 양상 비교
- IV. 설득 담화 양상으로 본 신재효본의 가치
- V. 결론

## I. 서론

이 연구는 고전 문학작품 안에 담겨 있는 설득 담화 양상을 분석하여 그 전략과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전통 사회의 설득 문화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설득 담화 양상을 살피려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자료가 요구되고, 그러한 자료 중에서도 대표성을 띠는 것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고전문학 중 한글로 기록된 소설을 주목하고자 한다.

고전 자료는 역사적이며 정태적이고 더 근원적인 면이 있어서 우리의 언어문화를 살피는 데 유용하고, 이를 토대로 오늘날 표현교육을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sup>1)</sup> 비록 작품 속 담화 양상이 작가의 붓끝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고전소설이 갖는 적층성이나 문학이 갖는 현실 반영의 속성을 생각할 때 문학 작품에 나타난 담화 양상은 그 시대의 언어문화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설득의 특성이 잘 드러난 고전 자료를 발굴하여 이를 제재로 삼을 수 있다면 표현교육의 내용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

1) 이를 고전표현론이라 하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김대행(1995) 참조

본다.

본고에서는 그 일환으로 <심청전>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심청전>에는 주인공 심청을 둘러싸고 여러 인물들 간의 설득 상황이 펼쳐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정 내에서는 심청이와 아버지가, 지역 사회에서는 심청이와 장승상 부인이, 그리고 공적인 신분인 황후로서 심청이 황제에게 요청하거나 거절하는 상황이 다층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때 심청은 어떻게 상대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하는지 살핀다면 그 가운데 설득의 전략과 문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심청전>은 하나의 작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 이본들이 모여 이루어진 작품군을 지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설득 상황의 분석은 자연스럽게 이본간의 비교로 이어진다. 이본에 따라 설득 상황을 어떻게 형상화했는지, 왜 그렇게 형상화했는지 따져보면 설득 담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본 간의 특징을 살피는 데에도 유용하리라 본다. 특정한 화소나 인물을 중심으로 이본간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 담화 양상’ 역시 이본을 비교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다.<sup>2)</sup> 이를 통해 종래에 이루어졌던 이본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up>3)</sup>

---

2) <심청전> 이본에 대한 연구가 과거에는 제작 형태(필사본, 방각본, 창본 등)나 지역(경판, 완판 등)을 중심으로 비교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특정 인물이나 대목의 변이 양상을 중심으로 살피는 경향이 나타난다. 후자에 속하는 연구로 김영수(2001), 신호림(2016) 등이 있다.

3)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한 <신재효본>의 경우 판소리 연구자 사이에서 상반된 평가를 받아왔다.

## II. 논의를 위한 예비적 고찰

### 1. 분석의 틀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수단을 ‘말의 논리(로고스)’, ‘청자의 감정(파토스)’, ‘화자의 인격(에토스)’으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먼저 로고스의 측면을 살펴보자. 화자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어떠한 논리를 만들어 가는가, 즉 설득 담화의 구성 방식에 주목할 때 논증 도식을 참고해 볼 수 있다. 논증 도식이란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사이의 관계를 표상하는 관습적인 방식으로, 포함(subsumption), 비교(comparison), 대립·대당 관계(opposition), 인과(causality), 귀납적 예시(inductive examples), 설명적 예시(illustrative example), 유추(analogy), 권위(authority), 분리(dissociation) 도식 등이 대표적이다.<sup>4)</sup>

한편, 설득 상황은 화자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제안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만류하여 논쟁이 발생했다가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수렴되면서 종료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를 화행 이론(speech act theory) 차원에서 설명하면, 요구나 제안이라는 요청 화행과 거부와 만류와 같은 거절 화행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화행이론에서는 이러한 화행을 체면 위협 행위(Face Threatening Act)로 간주하여 상대의 연령, 사회적 힘, 친밀도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박재현, 2016: 92) 이는 요청이나 거절 행위가 유발하는 청자의 감정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요청 화행이나 거절 화행에서 나타

---

4) 논증 도식에 대한 연구는 페렐만(Perelman)과 키폰트너(Kienpointer)가 대표적이며, 이에 대한 설명은 권순희·김경주·송지언·이영호·이윤빈·이정찬 외(2018: 390-391) 참조.

난 부가 전략들을 참조하고자 한다. 요청하기의 경우 청자의 부담감을 기준으로 그것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방식으로, 거절하기의 경우 청자의 단념을 유도하기 위해 공감·동정·죄의식 등의 감정을 활용한 다양한 표현 전략들이 밝혀져 있다.<sup>5)</sup>

이상과 같이 설득의 발화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요청의 승낙, 요청의 거절)를 얻기 위해 말의 논리(논증 도식 구성)를 세우고, 청자의 감정(부담감의 강화 혹은 약화)을 활용한다.<sup>6)</sup> 이에 본고는 설득 담화의 논증 도식과 요청과 거절 화행의 부가 전략들을 참고하여 <심청전>에서는 어떠한 설득 전략이 나타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분석 대상

<심청전>의 이본은 필사본, 방각본, 구활자본을 모두 포함하여 약 230종이 되는데(한국고소설학회 편, 2019: 343) 이들 간의 이본 연구는 주로 서사 단락의 구성 양상과 그 밀도의 차이에 주목하는데, 최근에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단서로 삼기도 하였다.<sup>7)</sup> 그러나 본고는 ‘작품 속 설득담화 양상’에 초점을 두고 그 형상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피고자 하므로 작품의 선후 관계보다는 내용상의 합리성에 더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심청전> 연구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작품을 중심으로 논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이본들의 양상을 비교하는 방식을 택한다.

5) 요청 부가전략과 거절 부가전략은 폴리 룡(2017: 49, 160)을 참조.

6) 설득의 주요한 수단으로 화자의 인격(에토스), 즉 ‘누가 말하는가’는 설득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작품 속 등장인물의 에토스를 분석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어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7) 김영수(2001)의 경우는 심봉사의 이름이 ‘심맹인>심맹규, 심운>심학규’로, 신희림(2016)의 경우 장승상 부인 삽화에서 ‘장자>장자 부인>장승상 부인’으로 이본의 변화 추이를 밝혔다.

〈심청전〉의 이본 중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완판 71장본(이하 완판본)’을 들 수 있으며,<sup>8)</sup> 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 심청을 둘러싸고 크게 심청과 심봉사, 심청과 장승상 부인, 심청과 황제 간의 설득 담화가 나타나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심청전〉 등장인물 간 설득 양상

	심청(요청) ↔ 심봉사(거절)	심청(거절) ↔ 장승상 부인(요청)	심청(요청) ↔ 황제(-) <sup>9)</sup>
주장	① 혼자 동냥하게 해 달라 ③ 삼백 석을 마련하겠다 ④ 인당수 제물이 되겠다	② 수양딸이 되어라 ⑤ 삼백 석을 대신 내겠다	⑥ 맹인 잔치를 열어 달라

〈심청전〉의 줄거리 속 설득 담화 삽입 양상은 아래와 같다.

〈표 2〉〈심청전〉 줄거리 속 설득 담화 삽입 양상

핵심 서사	설득 담화 삽입
심봉사의 만득독녀로 심청이 출생한다.	
심청의 모친이 사망한다.	
심봉사가 동냥을 하며 심청을 양육한다.	① 혼자 동냥하게 해 달라
동냥을 하던 심청이가 장승상 부인을 만난다.	② 수양딸이 되어라
심봉사가 딸을 찾아나갔다가 물에 빠져 시주승의 도움을 받는다.	
시주승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약속한다.	③ 삼백 석을 마련하겠다.
남경상인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을 판다.	④ 인당수 제물이 되겠다.

- 8) 완판 71장본은 이본들 가운데 가장 널리 보급되었으며, 〈심청전〉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정하영 역주(1995: 73) 참조.
- 9) 맹인잔치와 관련해서 심청과 황제가 심각하게 대립하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작품의 문맥상 심청이 요청의 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장면이기에 다루고자 한다. 이본(한남 24장본)에 따라 거절의 뉘앙스가 나타나는 작품도 있다.

발행 당일 부친에게 사실을 고하고 인당수에서 투신한다.	⑤ 삼백 석을 대신 내겠다.
옹궁에서 옹왕의 도움으로 지내다가 꽃을 타고 돌아온다.	
황후가 된 심청은 맹인 잔치를 연다.	⑥ 맹인 잔치를 열어 달라
부녀가 상봉하고 심봉사는 눈을 뜬다.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3쌍의 인물 사이에서 6가지 논쟁 주제를 중심으로 설득 담화가 펼쳐진다. 이를 살피기 위해 완판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다른 이본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비교 대상으로 신재효본을 중심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뒤에 다시 밝히겠지만, 독특한 설득 양상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 III. 인물간 설득 담화 양상 비교

#### 1. 심청과 심봉사의 설득 담화

완판본에서 심청은 심봉사와 작품 속에서 크게 3번 충돌한다. 혼자 동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①), 자신이 삼백 석을 마련하게 하겠다는 요청(③), 그리고 인당수의 제물이 되겠다는 요청(④)이 있었다. 설득 담화는 심청이와 심봉사의 대화가 인접쌍으로 나타나며, 요청과 거절, 그리고 재요청과 수락의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첫 번째 논쟁은 아버지 대신 혼자 구걸하겠다는 요청이다. 대화 상황만을 추출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미물 짐싱 가마구도 공임 저문 날의 반포홀 조를 아니 흐물며  
 사름이아 미물만 못흐오릿가 아버지 눈 어두신디 밥 빌너 가  
 시다가 뉘픈 디 집픈 디와 조분 질노 천방지방 단이다가 업푸  
 러져 상기 쉽고 만일 날 구진 날 비바람 불고 서리친 날 치위      심청의  
 병이 나실가 주야로 염여오니 닌 나히 칠팔 세라 싱아 육아 부      요청  
 모 은덕 이제 봉형 못흐면 일후 불형흐신 날의 이통흔들 갑사  
 오릿가 오날부텀 아버지는 집이나 직키시면 닌가 나셔셔 밥을  
 빌어다가 조석근심 덜게 흐오리다

(나) 네 말리 기특하다 인정은 그러흐나 어린 너를 닌보시고 안자      심봉사의  
 바다 먹난 마음 닌 엇지 편흐리요 그런 말 다시 말라      거절

(다) 자로난 현인으로 빅이에 부미흐고 제형은 어린 너자로되 낙양  
 옥중의 갓친 아비 제 몸을 파라 속죄흐니 그런 일 싱각흐면 스      심청의  
 름이 고금이 다르릿가 고집지 말으소서      재요청

(라) 기특하다 닌 쫄이야 효녀로다 닌 쫄이야 네 말디로 그러흐여      심봉사의  
 라(완판본, 221 - 222)<sup>10)</sup>      수락

(가)와 (다)는 심청의 요청이며, (나)와 (라)는 이에 대한 심봉사의 대응이다. 이를 단순화시켜 보면, 심청이 혼자 밥을 빌겠다는 주장을 심봉사가 거절하자, 심청이 다시 요청하여, 심봉사로 하여금 심청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설득 담화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심청이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가)에서 까마귀의 반포(反哺)라는 설명적 예시(illustrative example)를 언급하며 인간인 자신과 비교하는 비교(comparison) 도식을 사용하였고, 맹인 아버지가 다치실까 염려가 되며 지금 봉양하지 못하면 나중에 애통하게

10) 원문은 완판본, 경판본(한남본)의 경우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 (1998) 『심청전 전집3』을, 신재효본의 경우 김진영·김현주·김영수·김지영(1997), 『심청전 전집1』을 인용하였다. 이하 해당 판본과 면수만 표기.

된다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casuality) 도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봉사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자, 심청은 자로(子路)와 제영(緹縈)을 언급하며 재요청하고 있다. 즉 효자·효녀의 대명사로 불리는 역사적 인물과 그 전고(典故)를 이용하는 설명적 예시 도식을 구사하고 있다. 사례를 수집하여 귀납적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증의 방식이다.

두 번째 논쟁은 심봉사가 삼백 석 시주를 약속해 놓고 근심하자 심청이 자신이 그것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발생한다. 심청은 자신이 삼백 석을 마련해서 몽운사에 올리겠다고 하자, 심봉사는 불가능함을 알기에 이를 만류한다. 그러자 심청은 다음과 같이 아버지를 설득한다.

왕상은 고병하고 어름 궁기여 이어 었고 꺾거라 흐난 사름은 부모 반찬하여 노으면 제 자식이 상머리여 먹는다고 산 치 무드려 홀 제 금항을 어더다가 부모 봉양 하여쓰니 사친지효가 옛 사름만 못하나 지성이면 감천이라 흐오니 공양미는 자연이 엇사오리다 집피 근심 마음소셔(완판본, 229-230)

심청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이번에는 왕상(王祥)과 꺾거(郭巨)라는 효자의 사례를 들어 설명적 예시를 논증의 방식으로 택했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전제로부터 ‘(하늘이 감동하여) 공양미를 얻을 수 있다’는 명제를 도출해 내는 포함(subsumption) 도식을 사용하고 있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전제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냄으로써 상대의 동의와 승낙을 얻어낸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이 앞으로 지성(至誠)을 다하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세 번째 논쟁은 인당수 발행 당일, 공양미의 출처를 밝히면서 벌어진다. 심청의 일방적 통보에 가까운 요청을 심봉사가 만류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아부지 흐릴업소 나는 이무 죽거니와 아부지난 눈을 써서 디명천지 보고 착흔

사람을 구하여서 아들 낫코 쌀을 나아 아버지 후사나 전코 불초녀를 싱각지 마  
옵시고 만세만세 무랑ㅎ옵소서 이도 쏘흔 천명이오니 후회흔들 엇지ㅎ오리닛  
가(완판본, 235)

심청은 아버지를 위로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일을 천명(天命)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데  
사실 사지(死地)로 떠나는 딸의 행동을 아버지에게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것  
은 정상적인 부녀 관계를 생각할 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렇기에 심청  
은 사태를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발화를 마치고 있다.

한편 신재효본에서도 심청과 심봉사 사이에 위 세 가지 논쟁을 둘러싼  
설득 담화가 나타나 있다. 각각을 비교해 보겠다.

첫째, 심청이 독자적으로 구걸을 나서겠다는 요청은 신재효본에도 동일  
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장면이다. 서사의 진행상 심청이 독립해야 장승상 부  
인도 만날 수 있게 되고, 아버지가 늦게 귀가하는 심청을 찾아 나섰다가 개  
울에 빠지는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작품 내적으로도 심청  
의 성장을 보여주는 표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심청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과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그 첫 단계가 아버지 대신 동냥을 자  
청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신재효본의 경우, 완판본과 마찬가지로 심청의 요청과 아버지의 만류,  
그리고 심청의 재요청이 있는 다음 심봉사가 수락하는 형태의 대화가 진행  
된다. 다만, 그 담화 양상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점은 아버지를 재설득하  
는 대화이다.

건건마을 장승송딕 날을 스랑ㅎ시기로 그딕 쇼계 익난글을 디강 들어 아옴나니  
부자유친은 오류의 옷죵이요 칠세의 부동석은 스쇼흔 예절리라 칠세 여즈늬의  
ㅎ즈 집안의 들어안쇼 병신 부친 닉여노와 밥을 빌어 먹쑈오면 스람이라 ㅎ오  
릿꺃 저영은 아비 디로 나라의 상셔ㅎ고 양향은 아비구완 호랑을 안아씨니 글

어흔 여즈더른 남즈보단 나쓰오니 조석의 밥벌기가 무어시 덕단호오 가마귀 김  
 칭이나 공임 저문 날의 반포를 흐읍난디 허물며 스람으로 김싱만 못흐릿궂 즈  
 식의 도리오니 말이지 마음쇼셔(신재효본, 12)

신재효본의 경우 심봉사가 만류의 이유로 “양반의 후예로서 예절을 모  
 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심청의 나이가 이제 칠세가 되  
 었으므로 바깥출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청은 남녀칠세  
 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보다는 부자유친(父子有親)이 더 중요하다는 비교 도  
 식을 사용하고 있다. 비교 도식이란 기준을 세우고 둘 사이의 차이를 부각시  
 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도식으로, 심청은 인간이 지켜야 할 예절  
 이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녀칠세부동석’보다 ‘부자유친’을 내세움으로  
 써 상대의 거절을 반박하고 있다. 이본에 따라 심청의 나이가 표시되지 않거  
 나 십 세, 십오 세로 그 시점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서유경, 2002: 62), 신재효  
 본의 경우 칠 세로 나이를 설정함으로써 동남 자청의 논리를 세우는 데에 적  
 절한 시간적 배경을 만들어 둔 셈이다.

또한 심청이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때에 근거로 대는 사례들이 나  
 타나 있다. 완판본의 경우 반포(反哺), 자로(子路), 제영(緹縈) 등이 언급되었  
 다. 이처럼 효성을 표상하고 있는 역사적 인물이나 전고(典故) 등을 이용하  
 는 방식은 설명적 예시 도식이라 하였고, 이는 신재효본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난다. 다만, 그 대표성을 띠는 사례로 무엇을 들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본에 따라서 맹종(孟宗), 왕상(王祥), 제영(緹縈), 정난(丁蘭), 노래자(老萊子)  
 등의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신호립 2016: 60), 신재효본의 경우 제영  
 (緹縈)과 양향(楊香)을 선택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영과 양향은  
 모두 딸이었지만 아버지를 대신해 목숨을 구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심청과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sup>11)</sup>

11) 제영은 한(漢) 나라 문제 때 사람으로 아버지를 대신해 형벌을 받았다고 상소해서 아버지

두 번째 논쟁, 즉 ‘공양미 삼백 석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을 둘러싼 설득 담화는 조금 다른 형태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완판본의 경우 삼백 석 시주 약속의 주체가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심청이 수습하는 모습을 띤다. 반면에 신재효본의 경우 몽은사 화주승이 아직 집을 떠나지 않은 상황에서 심청이 귀가하는 설정으로 되어 있어서, 시주 약속의 주체가 아버지가 아닌 심청 자신으로 되어 있다.<sup>12)</sup> 물론 이와 관련한 아버지의 만류와 심청의 요청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시주의 주체가 달라짐으로써 신재효본의 경우 충동적인 결정으로 자식을 팔아먹은 아버지라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논쟁은 심청이가 인당수 발행 당일 공양미의 출처를 밝히면서 발생한다. 완판본에서는 심청이 하는 위로의 말과 아버지의 탄식으로 끝나 크게 실랑이가 벌어지지 않지만 신재효본의 경우 부녀간의 논쟁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장면은 사지로 가는 딸이 자신의 행동을 용납해 달라는 설득이므로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수용하기란 매우 어렵다. 게다가 출천지효라는 심청의 성품까지 고려하면, 심청이 이러한 상황을 무슨 말로 타개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심청의 대화를 살펴보자.

몽은스의 시쥬미를 쥬선홀 슈 업습기로 남경중스 선인의게 인당슈 제속으로 이 몸을 파라씨니 형선이 오날리라 선인더리 왓스오니 함씨 짜라 갈 테오니 불쵸홀 이 즈식은 조금도 싱각 말고 어서 슈이 눈을 써서 양가의 직취호야 아더를 나의시오 심청은 여식이라 서령 스라 잇싸기로 여즈유행 원부모라 남의 집 스람 되면 어디다 씨오릿 ㄹ(신재효본, 19)

의 형벌을 면하도록 했고, 양향은 진(晉) 나라 때 사람으로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하자 호랑이의 목을 졸라 아버지를 구했다고 알려져 있다.

- 12) 이처럼 시주를 승낙하는 주체가 아버지가 아닌 심청이로 되어 있는 작품은 박순호 38장본(낙), 정명기 38장본(낙) 등 작품 수가 많지 않지만 일부 존재한다. 신호림(2016: 63) 참조.

심청은 앞으로 아버지의 일생에서 이루어질 미래의 일을 언급하면서 “여자가 시집가면 부모와 멀어지는 것[女子有行 遠兄弟父母]”이라는 <시경(詩經)>의 한 대목을 인용하고 있다. 즉 제수(祭需)로서 바쳐지는 자신을 어차피 시집가면 아버지를 떠나갈 딸로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에는 인당수 제물이 되어 떠나는 것이나 시집을 가서 떠나는 것이 일반(一般)이라고 여기도록 하여 이별에 따른 부담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는 앞서 아버지를 대신해 구걸하겠다고 하면서 말한 “저영은 아비 디로 나라의 상서하고 양향은 아비구완 호랑을 안아씨니 글어흔 여즈더른 남즈보단 나쓰오니 죠석의 밥벌기가 무어시 디단호오?”라든가 삼백 석 시주를 하겠다면서 말한 “왕송은 어름 쑹기 이어를 어더쑹고 밍중은 눈 가운데 죽순니 쇼스씨니 빅미 습빅 석이 그리 디단호오릿?”와 같은 맥락에서 설득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행동과 수고가 전대의 효자·효녀와 비교했을 때 크게 대단하지 않음을 강조함으로써 상대의 부담을 덜고자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부녀 사이의 설득 담화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된 설득 수단은 청자의 심리이다. 심청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야 한다. 그러나 효와 관련하여 색난(色難)이란 말이 있듯이 자녀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부모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심청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청자의 심리를 이용한 고도의 설득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손성의 원리에서 말하는 관용과 요령의 격률은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는 대신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한다.(박재현 2016: 87) 그런데 부녀 시간에서는 자신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어렵지 않다.” “다른 어려운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다.”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표현하였다. 이를 위해 신재효본의 경우 전고나 역사적 인물을 설명적 예

시로 사용하였고 그것과 비교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상대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2. 심청과 장승상 부인의 설득 담화

〈심청전〉 연구사에서 장승상 부인 대목은 크게 주목을 받아 왔다. 장승상 부인 대목이 추가된 양상을 두고, 양반 향유층의 요구를 수용한 것(유영대, 1994)이라든지, 심청의 효성을 극대화한 것(김석배·서종문·장석규, 1998)이라든지, 서사의 폭을 확장하고 심청의 인물 형상을 강화한 것(김종철, 2013) 등의 해석이 있었고, 장자에서 장자 부인, 장자 부인에서 장승상 부인으로의 변천이 심청전 이본을 구분하는 중요한 표지(신호림, 2016)로 보기도 했다.

그렇기에 장승상 부인 대목은 모든 〈심청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완판본의 경우 장승상 부인의 설득 담화는 장승상 부인이 심청에게 제안(㉒ 수양딸이 되어라, ㉓ 삼백 석을 대신 내겠다)하고 심청은 이를 거절하는 형태로 두 번 등장한다.

첫 번째 제안은 심청이 맹인 부친을 위한 효성이 지극하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불러 실상을 파악한 후 수양녀가 되겠는지 묻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수양딸을 삼고자 하는 장승상 부인의 제안을 들어보자.

너 말을 들어서라 승상이 일직 기세히시고 아달리이 삼형제라 황성의 여환히여  
달은 자식 손자 업고 실희의 지미 업서 눈 압푸 말벗 업고 각방의 떠나리는 혼  
정신성후 후 다 각기 제 일 하니 적적후 빈 방의 디히나니 촉불이요 보나니 고  
서로다 네의 신세 싱각히니 양반의 후예로 저러타 궁곤히니 엇지 안이 불상하  
랴 너의 수양딸 되면 너공이며 문산을 학십하야 기출갓치 길너 너여 말연 지미  
보려히니 네 뜻시 엇더후요(완판본, 224-225)

장승상 부인은 수양딸이 필요한 이유를 자기의 처지(남편 사망, 아들들 출타, 며느리와 거리 등)와 심청의 처지(양반의 후예이나 곤궁함)로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청을 수락할 경우 심청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보상을 약속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심청은 아래와 같이 거절한다.

(전략) 오날 승상부인게옵서 권하신 쓰시 미천흔 줄 헤지 안코 쌀을 삼으려 하시니 이친을 모친을 다시 뵈온 듯 황송 감격하와 마음을 둘 고지 전이 업서 부인의 말삼을 좇자하면 몸은 영귀하오나 안흔하신 우리 부친 조석공양과 사절의 복 뉘라셔 이우릿가 구출하신 은덕은 사름마닥 잊거니와 지여날 하여난 당이별 논이라 부친 모시웁기를 모친 겜 모시웁고 우리 부친 날 밋기를 아달 겜 밋사오니 님가 부친 곳 안이시면 이제까지 살아스며 님가 만일 업거디면 우리 부친 나 문 히를 맞칠 기리 업사오며 오조의 사정 셔로 의지하여 님 몸이 맛도록 기리 모시려 하옵난니다(완판본, 225)

심청은 먼저 자신의 살아온 내력을 설명하면서 감사 표현(황송 감격하와 마음 둘 곳이 전혀 없음)을 함으로써 공손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심청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편이 곤궁해진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고 있다. 즉 자신이 수양딸이 되었을 때 벌어질 문제점들(부친의 조석공양과 의복 마련)을 이야기함으로써 청자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은 보통의 자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누구나 부모의 은덕을 입지만 자신은 어머니 없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심청이 없으면 아버지가 살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한다. 이에 부인이 수궁함으로써 설득 담화가 종료된다.

그런데 두 번째 제안과 거절은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심청이가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팔아 제수로 행선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타난다. 장승상 부인은 시비(侍婢)를 보내 심청을 부른 후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안을 한다.



네 이 무상흔 사름아 나는 너를 즈식으로 알아씨니 너는 날을 어미갓치 안이 아  
 난쏘다 빅미 삼빅 석의 몸이 팔여 죽으러 간다 하니 효성이 지극하다만은 네가  
 살여 세상의 잇서 하난 것만 갓할손야 날다려 은논테면 진직 주션헛엇지야 빅  
 미 삼빅 석을 이제로 니여 줄거스니 셤인덜 도로 주고 망영은말 다시 말나(완판  
 본, 236)

인당수의 제물로 자신을 판 심청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장  
 승상 부인 자신이 공양미 삼백 석을 대납하겠다는 제안을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심청의 거절은 아래와 같다.

당초의 말삼 못흔 거슬 이제야 후회흔들 엇지 헛오릿가 쏘흔 위친헛여 공을 빌  
 양이면 엇지 남의 무명식흔 지물을 빌려오며 빅미 삼빅 석을 도로 니여주면 셤  
 인들 임시 낭꺸오니 그도 쏘흔 어렵삽고 사름의게 몸을 허락헛여 약속을 정흔  
 후의 다시금 비약헛으면 소인의 간장이라 그난 쏘지 못헛려니와 헛몰며 굶슬  
 밧고 수식이 지닌 후의 차마 엇지 낫칠 드러 무삼 말을 헛오릿가 부인의 헛날갓  
 툰 은혜와 착하신 말삼은 지부로 도라가와 결초보은 헛오리다(완판본, 236)

심청은 회한(悔恨)을 담아 대답하고 있다. 심청에게 최선의 선택은 자  
 신도 죽지 않고 아버지의 눈도 뜨는 것이며 그러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러  
 한 방법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청은 새로운 이유를 제시함  
 으로써 장승상 부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거절의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인데 하나는 부모를 위한 일을 할 때 명분 없는 재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남경 상인들과의 신의(信義)이다. 부친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는 희생과 수고, 이른바 정성이 담겨야 하는데 대납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과  
 자신이 약속을 어겼을 때 남경 상인이 낭패를 보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한편, 신재효본의 경우 장승상 부인이 언급되고 있기는 하나 심청이와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sup>13)</sup> 즉 장승상 부인이 수양녀 제안을 하거나 삼백 석을 대납하겠다는 제안 자체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작품 자체의 서사적 합리성 측면에서 보면 장승상 부인의 수양녀 제안과 거절, 삼백석 대납 제안과 거절은 공색한 측면이 없지 않다. 완판본에서 심청이 수양녀 제안을 거절했던 이유는 아버지 봉양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기에 장승상 부인이 대납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를 수용해야 아버지를 살아서 봉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심청은 이를 거절하는 이유로 “무명색한 재물”과 “상인들과의 신의”, 즉 명분 없는 재물은 받을 수 없고, 이미 약속을 했기에 어길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공(空)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양딸이 되는 조건이며(이미 심청은 아버지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거짓말을 한 바 있다), 대납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지키기 위해<sup>14)</sup> 이효상효(以孝傷孝)의 길을 택하는 꼴이 되었다.

일찍이 성현경(1986)에서는 <심청이 효녀인가>라는 주제로 이본들을 비교하면서 신재효본의 경우 장승상 부인이 등장하고 있으나 공양미 삼백 석을 대납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점을 들어, 심청의 매신(賣身) 행위가 그야말로 다른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려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연구사에서 신재효본의 장승상 부인 대목을 두고 “더듬으로까지 확대시키지 못했”(유영대, 1989: 56)다거나 장승상 부인 대목 첨가 단계 중 초기 단계(김종철, 2013: 305)로 보는 것은 이본의 발달 측면에서 신재효본이 후대본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여기진다. 그러나 서사의

---

13) 신재효본에서는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간접적으로 등장한다. 장승상 부인이 자신을 사랑해서 글공부를 했거나, 장승상 부인 덕 수연이 있어서 늦었다는 이야기, 장승상 부인이 공양미를 마련해 주었다는 거짓말에서 언급되고 있다.

14) 마이클 샌델(2010)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계약 관계의 파기는 용납될 수 있다. 아무리 계약이 맺어졌다 하더라도 계약에는 합의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의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익에 의한 의무란 계약 당사자들 간의 동등한 수준의 이익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계약은 인신매매(人身賣買)의 성격을 띠므로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합리성, 특히 효녀로서의 심청의 행동을 더 설득력 있게 서술하기 위해서 장승상 부인의 대납 제안 대목이 필요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작품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따지면 신재효본이 완판본에 비해 앞선 것은 사실이다.<sup>15)</sup> 그러나 후대의 작품이라고 더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심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당수의 제물이 되는 것이 효녀로서의 심청을 더 부각시킨다면 이와 관련된 설득 담화가 나타나지 않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sup>16)</sup>

### 3. 심청과 황제의 설득 담화

〈심청전〉의 결말 부분에는 심청과 황제의 설득 담화가 맹인 잔치 배설 요청을 중심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치상 심청이 아버지의 소재를 알고 있으니 굳이 전국의 맹인을 모아 잔치를 열 필요까지는 없다. 완판본의 경우, 심청은 자신이 용궁 사람이 아니라 황주 도화동 출신이며 그러므로 그곳에 계신 아버지를 모셔오게 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사람을 보내 확인해본 결과 심봉사가 뽕덕어미로 인해 가산을 탕진한 후 행방이 묘연해졌기에 맹인 잔치를 열어야 하는 필연성이 성립된다. 따라서 맹인 잔치와 관련된 제안이나 요청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경판본 계열에 속한 작품들에는 맹인 잔치 요청과 관련하여 설득 담화가 나타나 있다. 한남본을 살펴보자.

(마) 미천흔 몸이 줄연히 영귀하니 엇지 즐겁지 아니하리잇고마는 다만 그윽흔

15) 이태영(2004: 351-352)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이른 시기의 완판본은 1896년 간행된 41장본이며, 71장본은 1905년 이후 확인된다. 반면에 신재효(1812-1884)는 그보다 더 앞선 시기의 사람이다.

16) 심사자 중 한 분이 서사적 합리성이라는 이유로 신재효본을 완판본보다 낫다고 평가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효녀라는 형상, 그리고 판소리의 장면중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에 대해 공감하지만, 일단 본고는 설득 담화를 중심으로 논리와 합리성을 따지는 데 초점을 두었음을 다시 밝힌다.

쇼회 잇습는지라 물웃 스름이 되여 칠규 등의 두 눈이 일월갓튼지라 눈이  
 밝은 즉 텃헝 만물을 다 보와 선악 정츄를 분변헝거늘 세간이 잔잉헝고 불  
 상헝 거슨 밍인이라 그 일를 싱각헝되 다 가튼 스름으로서 홀로 이갓튼 승  
 경을 보지 못헝니 오즉 답답헝리잇가

(바) 휘 인덕이 출등헝되 그 말이 고이치 안커니와 즈고로 병인이 왕왕 유지헝거  
 늘 현휘 굿터여 슬허홀 곡절이 이스리오(한남본, 79)

봄날 궁중에서 잔치를 열어 흥겨운 시간을 보내던 중 왕<sup>17)</sup>은 왕비의 슬  
 픔 얼굴을 보고 그 까닭을 묻자 심청은 (마)와 같이 “맹인들이 봄날 아름  
 다운 경치를 볼 수 없음이 답답하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왕은 (바)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은 늘상 있는 법”이라고 말한다. 비록 대화쌍에는 설득의 의도가  
 담긴 주장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심청의 첫 번째 발화는 맹인 잔치를 열게  
 해 달라는 요청을 위한 사전 포석임을 읽을 수 있다. 이어지는 심청의 대화  
 를 통해 왕의 승낙을 얻어낸다.

성괴 맛당헝시느 첩의 밋음은 이갓치 불상헝 거시 업헝니 맛당히 한 번 경향의  
 모든 밍인을 모화 슈록 진찬으로 그 마음을 위로헝고져 헝미 평싱의 밋쳐 윈헝  
 는 비로소이다(한남본, 79)

심청은 봄날 연회 자리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없는 맹인의 측은한  
 상태를 떠올리도록 한 뒤, 맹인 잔치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sup>18)</sup> 이처럼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 심청의 발화 속에는 사실,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

17) 완판본과 다르게 한남본은 황제가 아닌 왕으로 나타난다.

18) 프랑스 시인 앙드레 블턴이 “나는 맹인입니다.”라고 도움을 청하는 구절 팻말을 “봄이 오  
 건만 나는 이 봄을 볼 수 없습니다”로 바꾸어 더 큰 동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일화(EBS  
 ‘언어발달의 수수께끼’ 제작팀, 2014: 176)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를 찾아달라는 요청이 숨겨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아버지를 언급하는 대신 맹인 잔치를 요청했고, 맹인 잔치를 요청하기에 앞서 맹인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공감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설득에 이용하고 있다.

한편 신재효본의 경우에도 심청이 아버지를 직접 찾지 않고 맹인잔치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택한다. 그런데 그 이유인즉슨 “발설하엿다가 종적도 못츠지면 선여로 아든 터의 취졸만 될 거시니”라고 하여 아버지를 찾지 못할 경우 원래 신분만 탄로가 나고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었다. 이를 독백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던 중 봄날 잔치 가운데 심청의 근심스러운 얼굴을 본 황제가 그 까닭을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전략) 호교가 게옵시니 감이 양달하옵니다 쥬 문왕 첫 경수가 노즈를 안지호고  
호 문제 방춘화시 수궁을 진홀호니 빅성 중의 불승호 게 나이 늘근 병신이요 병  
신 중의 불승호 게 눈 못 보난 밍인이라 원고즈송이 공부즈의 말습이니 천허 밍  
인 다 모와서 쥬효를 맥인 후의 그 중의 유식호 밍인을 만니 골나 좌우의 모셔  
잇서 성경현전 외게 호고 그 중의 늘소 병들고 즈식도 업는 밍인은 경성의 집을  
지어 호디 모도 모와 두고 요를 쥬어 먹이오면 무고호 그 목숨이 전학지환 면홀  
테요 그 중의 지극덕화 만방의 미칠 텃니 여즈의 쇼견니나 언가용즈 취지하옵  
쇼셔(신재효본, 30)

근심의 이유를 묻는 황제에게 먼저 사죄하는 말을 한 뒤, 하교(下敎)가 있으니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준비한 말을 꺼내놓는다. 먼저 주나라 문왕(文王)과 한나라 문제(文帝)가 곤궁한 백성을 돌본 역사적 사실과 공자(孔子)가 고자(瞽者)를 돌보았던 일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치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백성이 누구인지, 그 가운데 맹인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황제의 덕이 온 세상에 미칠 것이라고 말하였다.

심청의 발화를 분석해 보면, 앞서 살핀 한남본과 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자신이 자발적으로 대화를 시작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 인해 마지못해 말하고 있다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다. 또한 심청이 얻고자 하는 “맹인 잔치 배설 요청”을 하기에 앞서,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논거를 열거하고 있는데, 불쌍한 자들을 구휼했던 역대 제왕의 사례와 공자의 언행들이 설명적 예시로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불쌍한 자들을 돕는 것이 성군(聖君)의 마땅한 자세’임을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청자의 심리를 이용한 심청의 설득 전략이 드러나는데, 불쌍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동정심 뿐 아니라 요청을 이행할 경우 따라오는 보상 약속, 즉 성군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상하 관계가 있는 사회에서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요청하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위계 관계가 엄격하고 이에 따라 높임법도 발달해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고맥락 문화 사회에서는 체면을 중시하는 고도의 설득 전략이 요구된다. 대체로 고맥락 문화 속에서는 명확한 언어 메시지보다는 맥락적 단서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꺼린다고 알려져 있다.(Edward Hall, 2013) 또한 영어의 담화 구조가 주제문을 앞에 두는 연역적 방식인데 반해 한국어의 담화 구조는 귀납적인 방식이라는 점(황적륜, 1990: 105-113)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언어문화는 중요한 말을 맨 뒤에 놓거나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특성이 있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여기 심청의 설득 메시지의 구성 역시 이러한 언어문화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자발적인 형태를 띠면서 시작한 요청 발화는 맹인이 가장 불쌍한 존재임을 깨우치도록 한 후 그들을 위해 행동을 취했던 선인들의 사례를 들어 “당신도 맹인을 위해 잔치를 열어 주기 바란다”는 심청의 주장에 동의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심청이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감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회적이라 할 수 있다.

#### IV. 설득 담화 양상으로 살펴본 신재효본의 가치

여기에서는 그간 논의했던 신재효본을 다른 이본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차이를 정리하고 그것의 의의를 밝히면서 <심청전>에 나타난 설득 담화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신재효본에도 있고, 완판본에도 나타나는 ‘심청과 심봉사’의 설득 담화는 그 횡수와 양상이 비슷하다. 동냥을 자청하거나, 삼백 석 시주를 마련하겠다고거나, 인당수 제물이 되겠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졌고, 심청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끝났다. 이때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도식은 설명적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뒷받침 논거로서 효나 성군의 덕을 드러내는 역사적 인물들이 관용구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신재효본은 심청 자신과 가장 비슷한 처지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면서 효를 행한 인물을 등장시켜 아버지를 설득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가상의 인물인 심청을 역사적 인물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의도로도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자식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상황은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앞서 지적했다.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신재효본의 두드러진 특징은 비교 도식의 사용을 통해 자신의 선택과 희생이 결코 큰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점이다. 선인들의 효행에 비해 자신의 행위는 아무 것도 아니며, 인당수 제물로 떠나는 자신을 어차피 시집을 가서 이별해야 하는 딸로서의 운명처럼 여기도록 함으로써 상대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자 하였다.

한편, 신재효본에서 ‘심청과 장승상 부인’간의 설득 담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반면에 완판본의 경우 장승상 부인의 제안은 첫째, ‘수양녀가 되어 달라’와 둘째, ‘공양미 삼백 석을 대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제안에 대해 심청은 각각 ‘아버지 봉양’과, ‘명분이 없으며 상인들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

라는 이유로 거절한다. 그런데 두 번째 거절 이유는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 한 말일지라도 첫 번째 거절 이유와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 이야기의 전개상 극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김종철, 2013:323-324)<sup>19)</sup> 이러한 점에서 장승상 부인과 설득 담화 양상이 나타나 있지 않은 신재효본이 더 합리적인 서사 전개가 아닌가 한다.

끝으로 신재효본에서는 심청과 황제의 설득 담화가 그 내면까지 잘 나타나 있다. 심청은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맹인 잔치를 대안으로 떠올리고 황제를 통해 승낙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이 매우 수동적 발화에 의해 나타나고, 맹인 잔치를 직접적으로 요청하기에 앞서 가장 불쌍한 존재에 대한 인식, 그들에 대한 성인·성군들의 행적 소개를 통해 맹인 잔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얻어냈다.

그간 신재효본에 대한 평가는 이미 연구사로도 정리된 바와 같이 긍정론과 부정론이 존재해 왔다.<sup>20)</sup> 신재효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근대 의식의 산물인 판소리를 오히려 봉건적 질서와 중세적 가치로 퇴행시켰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신재효가 상층 지향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서민의식과 양반의식의 이분법적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어 왔다. 본고는 신재효본의 긍정적인 평가 근거 중 하나인 ‘서사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설득 담화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신재효가 서사의 합리성을 의식했다면, 설득 담화 역시 이러한 면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신재효본에서는 서술자의 목소리를 빌어 ‘이면은 틀렸다’거나 ‘이면에 당치 않는다’는 식으로 평가하면서 개작 의식을 드러냈다. 이때 이면은 크게

19) 심지어 인당수로 발행하는 급박한 상황에 시비를 보내 자기 집으로 심청을 불러들이고 두 번째 제안을 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20) 신재효 평가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김대행(2001: 148-165), 참조



두 층위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즉 ‘죽문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다거나’, ‘향단이가 차려온 술상에 대한 묘사가 현실과 맞지 않다’ 등의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를 서사적 개연성의 측면에서 이해하였다.(최진형, 2004: 284) 그래서 그에 맞도록 내용을 새롭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재효본에서 자주 언급되는 유명한 대목이 있다.

뮤슈이 통곡짜ᄃ 다시금 일어나서 바람마진 병신갓치 이리 빗틀 저리 빗틀 치  
마폭을 물음써고 입을 아드득 물고 아고 나 죽너 소리 ᄃ고 물의 가 풍 싸졌다  
ᄃ되 그리ᄃ여서야 효녀 죽엄 될 슈 있나 두 손을 합장ᄃ고 ᄃ나님전 비난 마리  
(신재효본, 23쪽)

심청이 인당수에 투신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해서는 효녀 죽음이 될 수 있나”라고 하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효녀로서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서술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 이면이란 현실적으로 얼마나 사실적인가가 아니라 이념적인 차원, 즉 심청의 효라는 주제를 구현하기에 적합하다는 측면에서의 합리성을 따지고 있다.

따라서 신재효본의 설득 담화 양상 역시 두 층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설득 담화 자체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이다. 신재효본에서는 장승상 부인의 공양미 대납 제안과 같은 현실성이 없는 설득 담화 대신 서로 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화로 상대를 설득하도록 하는 담화가 제시되어 있다.<sup>21)</sup>

한편, 성현경(1985: 538-539)에서 신재효본 작품 전체가 심청이 효녀임

21) 심청의 대화 상황이 아니어서 여기에서는 살피지 않았지만, 심봉사를 설득하는 남경 상인의 설득 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딸을 인당수로 데려가는 남경 상인이 심봉사를 설득할 때는 역사적으로 자식을 버린 아버지의 사례를 설명적 예시로 들면서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하고, 계약 파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단념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

을 돋보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작가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한 것처럼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양미 시주 약속의 주체가 심봉사가 아닌 심청으로 되어 있어서 심청의 희생이 자발적인 것임을 드러내거나 장승상 부인의 대납 제안 자체를 등장시키지 않음으로써 희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그려낸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신재효본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황후가 된 후 심청은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 직접 아버지를 찾지 못했고, 비록 맹인 잔치 자체가 선택한 목적을 띠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아버지를 찾고 싶어 하는 사적인 욕망이 감추어져 있다는 점(최기숙, 2013: 472-477)을 볼 때 출천지효(出天之孝) 심청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비윤리적인 면을 드러낸다. 이를 인간의 모순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판소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 삼을 것이 없지만, 신재효본의 특성이 개작을 통해 서사의 합리성, 주제적 일관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논지로 볼 때 석연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 담화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합리성을 띤 작품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V. 결론

지금까지 <심청전>에 나타난 설득 담화 양상을 중심으로 여러 이본을 비교해 보았다. 신재효본에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심청과 심봉사의 설득 담화에서는 부너지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득 전략이 드러나 있다. 역사적 사례라는 설명적 예시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며 이것들과 비교를 통해 청자의 부담감을 줄이려는 표현 전략들이 활용되었다.

심청과 장승상 부인의 설득 담화는 완판본에만 나타나 있고, 신재효본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극적인 효과 대신 현실적 합리성을 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심청과 황제의 설득 담화는 공적인 상하관계에서 비자발적인 발화로 시작하고 있으며 돌려 말하기를 통해 완곡한 요청하기를 수행하였다.

신재효본은 이면에 맞게 개작하여 서사적 합리성을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바, 인물간의 설득 담화 양상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상황에 맞는 설득 담화를 구성함으로써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전통적인 설득 전략과 언어문화를 살필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로서 표현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20.4.22. 투고되었으며, 2020.5.14. 심사가 시작되어 2020.6.1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진영·김현주·김영수·김지영(1997), 『심청전 전집 1』, 서울: 박이정.
- 김진영·김현주·김영수·이기형·김지영·송은주(1998), 『심청전 전집 3』, 서울: 박이정.
- 정하영 역주(1995), 『심청전』,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권순희·김경주·송지언·이영호·이윤빈·이정찬·주재우·변경가(2018), 『작문교육론』, 서울: 사회평론.
- 김대행(1995),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 서울대 출판부.
- 김대행(2001), 「신재효를 보는 연구자의 시각」, 『우리 시대의 판소리 문화』, 서울: 역락.
- 김석배·서종문·장석규(1998), 「〈심청가〉 더늠의 통시적 연구」, 『판소리연구』 9, 195-275.
- 김영수(2001), 『필사본 심청전 연구』, 서울: 민속원.
- 김중철(2013), 「심청가와 심청전의 ‘장승상부인 대목’의 첨가 양상과 그 역할」, 『고소설연구』 35, 295-333.
- 박재현(2016),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이론 2판』, 서울: 사회평론.
- 서유경(2002), 『고전소설교육탐구』, 서울: 박이정.
- 성현경(1986), 『심청은 효녀인가』, 장덕순, 『한국문학사의 쟁점』, 서울: 집문당.
- 신호림(2016), 『심청전의 계열과 주제적 변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영대(1989), 『심청전 연구』, 서울: 문학아카데미
- 유영대(1994), 「‘장승상 부인 대목’의 첨가에 대하여」, 『판소리연구』 5, 39-49.
- 이태영(2004), 「심청가 41장본 해제」, 『국어사연구』 4, 351-352.
- 최기숙(2013), 「〈심청전〉의 공감화 맥락: ‘공/사’의 경계 구분과 공생적 공공성」, 『열상고전연구』 37, 472-477.
- 최진형(2004), 「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개작 지향(2): 두 가지 지향의 공존과 통합 양상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8, 281-308.
- 폴리 룡(2017), 『홍콩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과 거절 화행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고소설학회 편(2019), 『한국고소설강의』, 파주: 돌베개.
- 황적륜(1990), 「한국어와 영어의 담화구조 비교연구」, 『사대논총』 41, 105-113.
- EBS ‘언어발달의 수수께끼’ 제작팀(2014), 『언어 발달의 수수께끼』, 서울: 지식너머.
- Hall, E. (2013), 『문화를 넘어서 2판』, 최효선(역), 파주: 한길사(원서출판 1977).
- Sandel, M. (2010),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역), 파주: 김영사(원서출판 2009).

## 〈심청전〉에 나타난 설득 담화 양상 연구

— 표현교육의 제재로서 ‘신재효본’의 가치를 중심으로

주재우

이 연구는 〈심청전〉에 나타난 설득 담화 양상을 분석하고 그 전략과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고전 작품을 통한 표현교육의 확충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청전〉 이본 중 신재효본을 완판본과 비교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청과 심봉사의 설득 담화에서는 부녀지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득 전략이 드러나 있다. 설명적 예시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며 이것들과 비교를 통해 청자의 부담감을 줄이려는 표현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심청과 장승상 부인의 설득 담화는 완판본에만 나타나 있고, 신재효본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극적인 효과 대신 현실적 합리성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심청과 황제의 설득 담화는 공적인 상하관계에서 비자발적인 발화로 시작하여 돌려 말하기를 통해 요청하기를 수행하는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서사의 합리성을 갖춘 신재효본에 대한 평가에 기대어 설득 담화의 합리성을 탐구해 본 결과 신재효본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논쟁 상황에서는 설득의 논리와 전략이 돋보이는 이본으로서 표현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핵심어** 심청전, 설득 담화, 설득 전략, 이본, 신재효본, 표현교육

## A Study on the Persuasion Conversation Aspects in 〈Shimcheongjeon〉

—Focused on Value as Shinjaehyobon as a Material for Expression  
Education

Joo Jaewoo

This study analyzes the aspect of persuasion conversation in Korean classical novel <Simcheongjeon(沈淸傳)> and derives its strategy and features. Through this, we want to realize the understanding of a traditional language culture of persuasion and enlarge the educational content for expression.

The following features of persuasion conversation are shown in Shinjaehyobon(申在孝本). Simcheong persuaded her father used illustrative examples and comparisons scheme to reduce his father's psychological burden. There is no persuasion conversation between Shim Chung and noble lady Jang, because the converted writer Shinjaehyo chose narrative rationality rather than dramatic effect. To persuade the emperor to hold a feast for blinds, the empress Simcheong spoke in passive and indirect dialogue.

Shinjaehyobon among <Simcheongjeon> versions is a material for expression education that shows the traditional strategy of persuasion.

**KEYWORDS** Shimcheongjeon(沈淸傳), Persuasion Conversation, Persuasion Strategy, Version, Shinjaehyobon(申在孝本), Expression Education